

Devarim Ch. 21

Verse 10

“When you go out to fight against your enemies, and YHWH your Elohim shall give them into your hand, and you shall take them captive,”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Elohim 야훼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PaRDeS

Peshat: Moshe instructs Yisrael concerning what is to happen when they go to war against their enemies. Victory is not described merely as the result of military strength; YHWH gives the enemy into Yisrael’s hand.

Remez: “When you go out” hints that spiritual struggle requires movement. A person cannot overcome an enemy while remaining passive; one must step forward while depending upon YHWH for the outcome.

Drash: The verse joins human responsibility with divine sovereignty. Yisrael must **go out and fight**, yet YHWH must **give the enemy into their hand**. Faith therefore does not replace obedience and effort; it determines the source from which victory ultimately comes.

Sod: The external enemy may also reflect the inner adversary—the impulses, desires, fears, and pride that resist submission to YHWH. The promise of victory begins when the inner battle is brought under His authority.

Energetic Flow

Go Out → Face the Enemy → Fight → YHWH Gives → Enemy Surrenders → Captivity

The movement begins with **יָצָא** (*yatsa*, “to go out”). Yisrael must leave the place of security and confront what stands against them. Yet the decisive movement

페샤트: 모세는 이스라엘이 적군과 전쟁하러 나갈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승리는 단순히 군사력의 결과로 묘사되지 않는다. 야훼께서 적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다.

레메즈: “네가 나갈 때”라는 표현은 영적 싸움에는 행동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사람은 수동적으로 머물면서 적을 이길 수 없다. 결과는 야훼께 의지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드라쉬: 이 구절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연결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워야** 하지만, 적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분은 야훼** 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과 노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승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한다.

소드: 외적인 적은 또한 내면의 대적, 곧 야훼께 순종하기를 거스르는 충동과 욕망과 두려움과 교만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승리의 약속은 내면의 싸움을 그분의 권위 아래 가져올 때 시작된다.

나아감 → 적과 마주함 → 싸움 → 야훼께서 넘겨주심 → 적의 패배 → 사로잡음

흐름은 ****יָצָא (야차, “나가다”)****에서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안전한 자리를 떠나 자신들을 대적하는

comes from YHWH: וַיִּתֵּן יְהוָה אֱלֹהֶיךָ בְּיָדְךָ —
“YHWH your Elohim shall give him into your
hand.” Human movement meets divine
empowerment.

Meaning

The Torah does not teach Yisrael to remain passive while waiting for YHWH to act. They must **go out** and they must **fight**. At the same time, they must never interpret victory as proof of their own superiority. The enemy is placed “**into your hand**” because YHWH gives the victory.

This establishes an important Torah pattern:
obedience requires action, but successful action must remain dependent upon YHWH. The hand fights, but the heart remembers who gave the enemy into that hand.

Mussar

Do not confuse trusting YHWH with doing nothing. Some battles require us to “go out”—to confront a weakness, repair a relationship, resist temptation, correct an injustice, or obey something we have been postponing.

But after stepping forward, we must guard against the opposite danger: believing that our own strength produced the victory. Verse 10 teaches both **courage before the battle and humility after the victory.**

The discipline: Identify what YHWH is requiring you to confront. Take the obedient step that belongs to you, while leaving the victory in His hands.

것과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움직임은 야훼로부터 온다. וַיִּתֵּן יְהוָה אֱלֹהֶיךָ בְּיָדְךָ — “네 Elohim 야훼께서 그를 네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난다.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야훼께서 행동하시기를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나가야** 하고 **싸워야** 한다. 동시에 승리를 자신들의 우월함의 증거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적군이 “**네 손에**” 넘겨지는 것은 야훼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한 토라의 원리를 세운다. **순종에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성공적인 행동은 계속 야훼께 의존해야 한다.** 손은 싸우지만, 마음은 누가 적군을 그 손에 넘겨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야훼를 신뢰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혼동하지 말라. 어떤 싸움은 우리가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약점을 직면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유혹을 거부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미루어 왔던 순종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간 후에는 반대편의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힘이 승리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Verse 10 은 **싸움 앞에서는 용기를, 승리 후에는 겸손을** 가르친다.

훈련: 야훼께서 지금 무엇을 직면하라고 요구하시는지 분별하라. 자신에게 맡겨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되, 승리는 그분의 손에 맡기라.

“and shall see among the captives a woman fair of form,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and shall delight in her and take her for your wife,”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PaRDeS

Peshat: The Torah addresses a situation in which an Yisraelite soldier sees an attractive woman among the captives and desires to take her as his wife. Rather than ignoring the power of human desire in wartime, the Torah immediately begins placing boundaries around it.

Remez: The sequence “see → desire → take” reveals how temptation often develops. What enters through the eyes can awaken desire, and desire can quickly seek possession. The Torah interrupts this progression before desire becomes uncontrolled action.

Drash: Torah does not pretend that righteous people never experience powerful desires. Holiness is demonstrated by what a person does **after desire appears**. The soldier's authority over a captive does not give him unrestricted authority over her. His desire must come under Torah's discipline.

Sod: The captive woman can symbolically represent something encountered during spiritual struggle that suddenly captures the heart. The deeper danger is that while a person believes he has captured something, **his own desire may actually have captured him**.

Energetic Flow

Seeing → Attraction → Desire → Possession → Torah Intervenes

The verse moves rapidly from רָאִיתָ — “you shall see” to תִּשְׁקָהָ — “you shall desire/delight in her” and then תִּלָּקְתָּהּ — “you shall take.” The Torah recognizes how quickly sight can become desire and desire can become

페샤트: 토라는 이스라엘 군인이 포로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마음이 끌려 아내로 삼고자 하는 상황을 다룬다.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을 무시하지 않고, 토라는 즉시 그 욕망에 경계를 세우기 시작한다.

레메즈: ***“보다 → 원하다 → 취하다”***라는 순서는 유혹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 준다. 눈으로 들어온 것이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은 곧 소유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라는 욕망이 통제되지 않은 행동이 되기 전에 그 흐름을 막는다.

드라쉬: 토라는 의로운 사람이 강한 욕망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거룩함은 욕망이 생긴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나타난다. 포로에 대한 군인의 권력이 그 여인에게 무제한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의 욕망은 토라의 훈련 아래 들어가야 한다.

소드: 포로 된 여인은 영적 싸움 가운데 갑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더 깊은 위험은 사람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 동안,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봄 → 끌림 → 욕망 → 소유하려 함 → 토라의 개입

이 구절은 **רָאִיתָ — “네가 보고”**에서 תִּשְׁקָהָ — “그녀를 원하고/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תִּלָּקְתָּהּ —

action. The following commandments deliberately slow “취하다”***로 빠르게 진행된다. 토라는 보는 것이
this movement down.
얼마나 빨리 욕망이 되고, 욕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인정한다. 이어지는 명령들은
의도적으로 이 흐름을 늦춘다.

Meaning

Verse 11 must be read together with the regulations that immediately follow. The Torah does not simply authorize the soldier to act upon attraction. Instead, it takes an emotionally charged wartime situation and subjects it to **time, procedure, restraint, and responsibility**.

This is especially significant because the woman is a captive and therefore vulnerable. The Torah prevents immediate possession. Before the relationship can proceed, the soldier must return home, wait, and pass through the process described in the following verses. **Desire is forced to wait.**

Mussar

Not everything we strongly desire should immediately become ours. Intensity of desire is not proof that something is right. Torah places space between attraction and action so that desire can be examined rather than automatically obeyed.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ciplines of holiness is therefore **delay**. When emotion says, “Take it now,” wisdom asks, “What does Torah require before I act?”

The discipline: When a powerful desire arises, do not immediately ask, “How can I obtain this?” First ask, **“What happens to this desire when I place it under the authority of YHWH?”**

Verse 11 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규정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 토라는 군인이 단순히 자신의
끌림에 따라 행동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전쟁 상황을
시간, 절차, 절제, 책임 아래 두게 한다.

이것은 그 여인이 포로로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토라는
즉각적인 소유를 막는다. 관계가 진행되기
전에 군인은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며 다음
구절들에 기록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욕망은
기다려야 한다.**

**강하게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즉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욕망의 강도는 그것이 옳다는
증거가 아니다. 토라는 끌림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두어 욕망에 자동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살펴보게 한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이다. 감정이 “지금 취하라”고 말할
때 지혜는 묻는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토라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훈련: 강한 욕망이 생길 때 즉시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지 말라. 먼저 이렇게

물으라. “이 욕망을 야훼의 권위 아래 두면 어떻게 되는가?”

Verse 12

“then you shall bring her home to your house, and she shall shave her head and trim her nails,”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PaRDeS

Peshat: The captive woman is brought into the soldier's household, but marriage does not occur immediately. She undergoes a visible transition from her former condition before anything further takes place.

Remez: Shaving the head and attending to the nails remove or alter aspects of outward appearance. What first attracted the soldier is no longer allowed to remain the controlling factor. **Appearance gives way to reality.**

Drash: Desire often idealizes its object. Torah introduces time and changed circumstances so that the soldier must encounter the woman as a human being rather than merely as the beautiful figure he saw among the captives.

Sod: Spiritually, transformation sometimes requires stripping away the external things by which identity has been constructed. What remains when appearance, status, and immediate attraction are removed reveals what is deeper.

Energetic Flow

Desire → Home → Separation → Transformation → Waiting

Verse 11 moved quickly from seeing to desiring to taking. Verse 12 suddenly slows everything down. The battlefield disappears, the woman enters the household,

페샤트: 포로 된 여인은 군인의 집으로 들어오지만 결혼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그녀는 이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눈에 보이는 전환의 과정을 거친다.

레메즈: 머리를 밀고 손톱을 정리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처음 군인의 마음을 끌었던 외모가 더 이상 결정적인 요소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외모가 물러나고 현실이 드러난다.**

드라쉬: 욕망은 흔히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상화한다. 토라는 시간과 변화된 상황을 개입시켜 군인이 그 여인을 단순히 포로 가운데서 보았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마주하게 한다.

소드: 영적으로 변화는 때때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외적인 것들을 벗겨 내는 과정을 요구한다. 외모와 지위와 순간적인 매력이 제거되었을 때 남는 것이 더 깊은 실체를 드러낸다.

욕망 → 집 → 분리 → 변화 → 기다림

11 절에서는 보는 것에서 욕망하고 취하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2 절에서는 모든 것이

and outward appearance begins to change. **The emotional momentum of war is interrupted.**

갑자기 느려진다. 전쟁터는 사라지고, 여인은 집으로 들어오며, 외적인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전쟁에서 생겨난 감정의 추진력이 중단된다.**

Meaning

The command creates distance between the soldier's initial attraction and any permanent decision. What appeared desirable in the excitement of conquest must now be considered in ordinary life. The battlefield is no longer allowed to determine the future relationship.

Torah therefore transforms an impulsive moment into a process. **What begins with sight must pass through time before it becomes covenantal responsibility.**

이 명령은 군인의 처음 끌림과 영구적인 결정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정복의 흥분 속에서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을 이제 일상의 현실 속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쟁터의 감정이 미래의 관계를 결정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라는 충동적인 순간을 하나의 과정으로 변화시킨다. **눈으로 본 것에서 시작된 욕망은 언약적 책임으로 이어지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Mussar

Strong emotions often become clearer when circumstances change. What appears irresistible in one moment may look very different after time has passed. Torah therefore teaches us not to make permanent decisions solely from temporary intensity.

The discipline: Before making an important decision under strong emotion, allow enough time for outward excitement to fade. Then ask whether the decision still reflects wisdom, responsibility, and obedience to YHWH.

강한 감정은 상황이 달라지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순간 거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토라는 일시적인 감정의 강도만으로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가르친다.

훈련: 강한 감정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외적인 흥분이 가라앉을 충분한 시간을 두라. 그런 다음 그 결정이 여전히 지혜와 책임과 야훼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라.

Verse 13

“and put aside the mantle of her captivity, and shall dwell in your house, and mourn her father and her mother a month of days. And after that you shall go in to her and be her husband, and she shall be your wife.”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PaRDeS

Peshat: She removes the clothing associated with her captivity and is given a full month to mourn her father and mother. Only **afterward** may the marriage proceed.

Remez: Before a new life can begin, the loss of the old life must be acknowledged. Torah does not demand immediate emotional transition. **Mourning stands between captivity and marriage.**

Drash: The soldier's desire is not the only emotion that matters. The woman has suffered separation, displacement, and loss. Torah forces the powerful person to wait while the vulnerable person is given room to grieve.

Sod: There are transitions in which something old must be mourned before something new can properly begin. Spiritual transformation is not always instantaneous; sometimes holiness requires a sacred interval between **what was and what will be.**

Energetic Flow

Remove Captive Garment → Dwell → Mourn → One Month → Afterward → Marriage

The key movement is **וְאַחַר כֵּן** — *ve'ahar ken*, “**and after that.**” Desire cannot determine the timetable. Torah determines it. The soldier must wait until the woman's period of mourning has been honored.

Meaning

페샤트: 그녀는 포로와 관련된 옷을 벗고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받는다. 결혼은 오직 **그 후에야** 진행될 수 있다.

레메즈: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전에 이전 삶의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 토라는 즉각적인 감정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포로 생활과 결혼 사이에 애곡의 시간이 놓여 있다.**

드라쉬: 군인의 욕망만이 중요한 감정이 아니다. 그 여인은 이별과 강제적인 이동과 상실을 겪었다. 토라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슬퍼할 공간을 준다.

소드: 새로운 것이 올바르게 시작되기 전에 옛것을 애도해야 하는 전환의 때가 있다. 영적 변화가 항상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 거룩함은 **과거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 사이에** 거룩한 시간을 요구한다.

포로의 옷을 벗음 → 머물 → 애곡함 → 한 달 → 그 후 → 결혼

핵심적인 흐름은 **וְאַחַר כֵּן** — *베아하르 켄*, “그 후에”이다. 욕망이 시간표를 결정할 수 없다. 토라가 그것을 결정한다. 군인은 그 여인의 애곡 기간이 존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A striking reversal has taken place. In verse 11 the soldier **saw what he wanted**. By verse 13, Torah has forced him to recognize **what she has lost**. His desire is no longer the center of the story.

This is a profound Torah principle: **another person's vulnerability places limits upon my desires**. Having power does not mean having permission to use that power immediately for oneself.

Mussar

Mature love asks more than, **“What do I want from this person?”** It also asks, **“What is this person experiencing?”** Torah redirects attention from possession toward compassion.

The month of mourning teaches that another person's pain should not be rushed merely because we are eager to move forward. **Holiness gives grief its proper time**.

The discipline: Before pursuing what you want from another person, consider what that person may be carrying. Desire asks, “What can I receive?” Covenant asks, **“What responsibility do I now carry?”**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다. 11 절에서 군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13 절에 이르면 토라는 그에게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 보게 한다. 이제 그의 욕망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토라의 원리이다. **다른 사람의 취약함은 나의 욕망에 한계를 둔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힘을 즉시 자신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성숙한 사랑은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만 묻지 않는다. 또한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토라는 관심을 소유에서 긍휼로 돌린다.

한 달의 애곡 기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서둘러 끝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거룩함은 슬픔에게 필요한 시간을 허락한다**.

훈련: 다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욕망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지만, 언약은 ***“이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Verse 14

“And it shall be, if you have no delight in her, then you shall let her go where she desires, but you shall not sell her at all for silver. You shall not treat her harshly, since you have humbled her.”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PaRDeS

Peshat: If the man later no longer desires the woman, he cannot sell her or reduce her to property. He must release her freely. The Torah therefore places a firm limitation upon the power of the soldier who originally took her captive.

Remez: Desire may change, but responsibility does not disappear merely because desire has changed. What we once chose can create obligations that remain after our feelings have faded.

Drash: Torah refuses to allow the powerful person to turn another human being into a disposable object. The woman cannot move from captive, to wife, and then to merchandise. Once the man has altered the course of her life, he bears responsibility for how he treats her afterward.

Sod: Spiritually, this warns against a heart that values people only while they satisfy personal desire. Covenant consciousness sees dignity that remains even when attraction, usefulness, or advantage disappears.

Energetic Flow

**Desire Fades → Power Is Restrained → No Sale
→ No Exploitation → Freedom**

The crucial command is **וְשִׁלַּחְתָּהּ לְנַפְשָׁהּ** — **veshillahtah lenafshah**, “you shall send her away for herself.” The movement reverses. The man who once “took” must now **release**. Torah turns possession into responsibility and finally, when the relationship ends, into freedom.

페사트: 후에 남자가 더 이상 그 여인을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녀를 팔거나 소유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는 그녀를 자유롭게 보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토라는 처음 그녀를 포로로 취했던 군인의 권력에 분명한 한계를 둔다.

레메즈: 욕망은 변할 수 있지만, 욕망이 변했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때 선택한 것은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되는 책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드라쉬: 토라는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인간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여인은 포로에서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상품으로 전락할 수 없다. 남자가 그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면, 그 후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소드: 영적으로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동안에만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경고한다. 언약적 의식은 매력이나 유용성이나 이익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본다.

욕망이 사라짐 → 권력이 제한됨 → 팔 수 없음 → 착취할 수 없음 → 자유

핵심 명령은 **וְשִׁלַּחְתָּהּ לְנַפְשָׁהּ** — **베실라흐타흐**

레나프샤흐, “그녀를 그녀 자신을 위하여

보내라”**이다. 흐름이 반대로 바뀐다. 한때

“취했던” 남자는 이제 **놓아주어야** 한다. 토라는

소유하려는 욕망을 책임으로 바꾸고, 관계가 끝날 때에는 결국 자유로 바꾼다.

Meaning

Verses 10–14 form a remarkable progression. The passage begins with military victory and the soldier's desire, but Torah progressively limits his power. He cannot act immediately, must allow mourning, must accept marital responsibility, and if the relationship ends, **he cannot profit from the woman's vulnerability.**

Torah therefore redirects the question from **“What am I permitted to take?”** toward **“What responsibility do I bear because of what I have done?”**

Mussar

Changing feelings do not erase moral responsibility. We must consider how our decisions affect the lives of others, especially when we possess greater power, authority, or advantage.

A person reveals character not only by how he treats what he desires, but also by **how he treats what he no longer desires.**

The discipline: When circumstances or feelings change, do not ask only, “What do I want now?” Ask, **“What does righteousness require from me now?”**

10–14 절에는 놀라운 흐름이 있다. 이 단락은 군사적 승리와 군인의 욕망으로 시작하지만, 토라는 점차 그의 권력을 제한한다. 그는 즉시 행동할 수 없고, 애곡의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결혼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다면 **그 여인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토라는 질문을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에서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로 바꾼다.

감정이 변했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더 큰 힘이나 권위나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성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뿐 아니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도 드러난다.

훈련: 상황이나 감정이 변할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만 묻지 말라. *****“의로움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물으라.

Verse 15

“When a man has two wives, one loved and the other unloved, and they have borne him children, both the loved and the unloved, and the first-born son is of her who is unloved,”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PaRDeS

Peshat: Torah presents a household containing two wives, one favored and one less favored. If the firstborn son belongs to the less-favored wife, the father's feelings toward the mothers cannot change the son's legal status.

Remez: The placement immediately after the captive-woman passage is significant. Personal attraction and rejection can reshape a household, but Torah establishes boundaries so that changing affection does not become injustice toward the next generation.

Drash: Torah recognizes unequal affection without allowing unequal affection to redefine justice. The father may have preferences, but preference cannot determine truth.

Sod: The unloved person may occupy a hidden place from which something of great importance emerges. What human affection undervalues is not thereby deprived of its proper place before YHWH.

Energetic Flow

Love → Rejection → Children → Firstborn → Conflict Between Feeling and Order

The contrast is between **הָאָהוּבָה** — *ha'ahuvah*, “the loved one” and **הַשֵּׁנוּאָה** — *hasenu'ah*, “the unloved one.” Yet the legal issue is determined not by affection but by **הַבְּכוֹר** — *habekhor*, “the firstborn.” Torah moves the household from subjective feeling toward objective responsibility.

Meaning

페사트: 토라는 두 아내가 있는 가정을 제시한다.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은 덜 사랑을 받는다. 장자가 덜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났다면, 두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이 아들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 없다.

레메즈: 이 규정이 포로 된 여인에 관한 말씀 바로 뒤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개인적인 끌림과 거부감은 가정의 모습을 바꿀 수 있지만, 토라는 변화하는 감정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불의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운다.

드라쉬: 토라는 사람의 애정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차이가 공의를 다시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개인적인 선호가 있을 수 있지만, 선호가 진실을 결정할 수는 없다.

소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오히려 매우 중요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인간의 애정이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야훼 앞에서 그 사람의 정당한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 → 거부 → 자녀 → 장자 → 감정과 질서의 충돌

대조되는 표현은 **הָאָהוּבָה** — *하아후바*, “사랑받는 자”**와 **הַשֵּׁנוּאָה** — *하스누아*, “사랑받지 못하는 자”**이다. 그러나 법적 문제는 애정이 아니라 **הַבְּכוֹר** — *하베코르*, “장자”**라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토라는 가정을 주관적인 감정에서 객관적인 책임으로 이끈다.

Torah does not command the father to pretend that his feelings are identical. Instead, it establishes something stronger: **his feelings are not permitted to control justice.**

This becomes particularly important within families, where affection can easily become favoritism. Torah protects established rights from the instability of human preference.

Mussar

Feelings are real, but they are not always reliable judges. We naturally feel closer to some people than others. The moral question is whether those preferences cause us to distort what is right.

Torah therefore distinguishes **love from justice.** Love may vary in intensity; justice must not vary according to favoritism.

The discipline: When making decisions involving people you favor and people you do not, ask whether you would make the same judgment if your personal feelings were reversed.

토라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처럼 가장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강한 원리를 세운다. **그의 감정이 공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애정이 쉽게 편애로 변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토라는 인간의 선호가 가진 불안정성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감정은 실제이지만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재판관은 아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움을 느낀다. 도덕적인 질문은 그러한 선호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을 왜곡하는가이다.

따라서 토라는 **사랑과 공의**를 구별한다. 사랑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의가 편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훈련: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적인 감정이 서로 뒤바뀌어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인지 스스로 물으라.

Verse 16

“then it shall be, on the day he makes his sons inherit his possessions, he is not allowed to treat the son of the beloved wife as first-born in the face of the son of the unloved, who is truly the first-born.”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PaRDeS

Peshat: When the father distributes his inheritance, he may not declare the son of his preferred wife to be the firstborn if another son is actually the firstborn. Personal preference cannot rewrite birth order.

페샤트: 아버지가 기업을 나눌 때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선언할 수 없다. 다른 아들이 실제 장자라면 개인적인 선호가 출생 순서를 다시 쓸 수 없다.

Remez: Human beings sometimes try to reshape reality according to affection. Torah insists that truth must be acknowledged even when truth does not favor the person we prefer.

Drash: Favoritism becomes injustice when someone with authority uses that authority to give one person what properly belongs to another. Torah therefore disciplines not merely emotion but the exercise of power.

Sod: Truth possesses an order that human desire cannot legitimately rearrange. Spiritual maturity means learning to submit our preferred reality to the reality established by YHWH.

Energetic Flow

Inheritance → Temptation to Favor → Torah Prohibits → True Firstborn Recognized → Order Preserved

A key expression is **עַל־פְּנֵי בְרִיהַשֵּׁנוּאָה הַבְּכֹר** — “**over the son of the unloved, the firstborn.**” The father cannot place affection **over** established status. His authority has boundaries.

Meaning

The Torah protects the person who is vulnerable precisely because he lacks the father's favor. Without Torah's boundary, the father's emotional preference could become economic injustice.

Thus Torah repeatedly restrains power in this chapter: the victorious soldier, the husband, and now the father all possess authority, but **authority never becomes permission to ignore righteousness.**

레메즈: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애정에 맞추어 현실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토라는 진실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드라쉬: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속한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때 편애는 불의가 된다. 그러므로 토라는 감정뿐 아니라 권력의 사용까지 훈련한다.

소드: 진실에는 인간의 욕망이 마음대로 재배열할 수 없는 질서가 있다. 영적 성숙은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아훼께서 세우신 현실 아래 복종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기업 → 편애의 유혹 → 토라의 금지 → 참 장자를 인정함 → 질서가 보존됨

핵심 표현은 **עַל־פְּנֵי בְרִיהַשֵּׁנוּאָה הַבְּכֹר** —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아들, 곧 장자보다 앞세워”**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애정을 이미 확립된 지위 **위에** 둘 수 없다. 그의 권위에는 경계가 있다.

토라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기 때문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 토라의 경계가 없다면 아버지의 감정적인 선호가 경제적인 불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장에서 토라는 반복해서 권력을 제한한다. 승리한 군인, 남편, 그리고 이제 아버지 모두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권위가 의로움을 무시할 수 있는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Justice matters most when we have the power to bend the outcome. It is easy to appear fair when we cannot change anything. Character is revealed when we possess enough authority to favor ourselves or those we love but choose righteousness instead.

The discipline: Whenever you hold authority, distinguish between “**what I have the power to do**” and “**what is right for me to do.**”

공의는 우리가 결과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때 공정해 보이는 것은 쉽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들 권력이 있음에도 의로움을 선택할 때 성품이 드러난다.

훈련: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하라.

Verse 17

“**But he is to acknowledge the son of the unloved wife as the first-born by giving him a double portion of all that he has, for he is the beginning of his strength—the right of the first-born is his.**”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PaRDeS

Peshat: The father must formally recognize the actual firstborn and give him the prescribed double portion. The firstborn's right exists regardless of the father's emotional preference.

페샤트: 아버지는 실제 장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정해진 두 몫을 주어야 한다. 장자의 권리는 아버지의 감정적인 선호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Remez: Torah moves beyond merely prohibiting injustice. The father must positively **recognize** the one he might otherwise overlook. Righteousness requires not only refusing to take someone's rightful place but actively honoring it.

레메즈: 토라는 단순히 불의를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다. 아버지는 자신이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의로움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자리를 빼앗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 자리를 실제로 존중하는 것을 요구한다.

Drash: The command יָכִיר — *yakkir*, “**he shall acknowledge**” is powerful. The father must allow truth to overcome preference. Recognition becomes an ethical act: “This is who he is, and I will give him what rightly belongs to him.”

드라쉬: **יָכִיר — 야키르, “그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명령은 매우 강력하다. 아버지는 진실이 자신의 선호를 이기도록 해야 한다. 인정은 윤리적인 행동이 된다. “이것이 그의 정당한 지위이며, 나는 그에게 마땅히 속한 것을 주겠다.”

Sod: What is hidden or unloved by human preference may nevertheless carry a divinely established portion. Spiritual sight learns to recognize worth and order that personal emotion might overlook.

Energetic Flow

Truth → Recognition → Double Portion → Established Right → Justice

יָכִיר — *yakkir* comes from נָכַר (*nakhar*), in this form carrying the sense of recognizing or acknowledging. The Torah does not permit silent resentment combined with technical compliance. The father must **recognize** the firstborn's status and act accordingly.

Meaning

Verses 15–17 establish a powerful distinction between **affection and obligation**. The father may control neither whom his heart naturally favors nor the circumstances of birth, but he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his feelings do not corrupt justice.

The double portion is therefore more than inheritance mathematics. It demonstrates that **covenantal order must be honored even when personal preference points elsewhere**.

Mussar

Sometimes righteousness requires us to say plainly, “**This belongs to you,**” even when giving it costs us or benefits someone we do not naturally favor.

The Torah's answer to favoritism is not merely neutrality but **recognition**—seeing clearly, acknowledging truth, and giving each person what is rightly due.

소드: 인간의 선호에 의해 감추어지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영적인 눈은 개인적인 감정이 놓칠 수 있는 가치와 질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진실 → 인정 → 두 몫 → 확립된 권리 → 공의

יָכִיר — *야키르*는 נָכַר (*나카르*)**에서 나오며 여기서는 알아보고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토라는 속으로 거부하면서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데 머물지 않는다. 아버지는 장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15–17 절은 **애정과 의무** 사이에 강력한 구별을 세운다.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이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또는 출생의 상황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감정이 공의를 부패시키지 않도록 할 책임은 있다.

그러므로 두 몫은 단순한 상속 계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호가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에도 언약의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때때로 의로움은 그것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이것은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을 요구한다.

편애에 대한 토라의 해답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인정**이다. 분명히 보고, 진실을 인정하며, 각 사람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것을 주는 것이다.

The discipline: Practice *yakkir*—recognition. Ask yourself: “Is there someone whose rightful contribution, position, or due I am minimizing because of my personal feelings?”

훈련: *야키르*, 곧 인정을 실천하라. 스스로 물으라.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누군가의 정당한 기여나 위치나 몫을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가?”

Verse 18

“When a man has a wayward and rebellious son who is not listening to the voice of his father or the voice of his mother, and who, when they have disciplined him, does not listen to them,”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PaRDeS

Peshat: Torah describes a son whose behavior has become persistently rebellious. He refuses to listen to both father and mother and continues in rebellion even after they discipline him. The issue is therefore not a single act of disobedience but an established pattern.

Remez: The repeated expression “does not listen” points to the deeper problem. Rebellion begins when a person becomes unwilling to hear correction.

Drash: Torah distinguishes weakness from stubborn rebellion. Everyone fails, but the dangerous condition arises when correction itself is rejected. The question is not merely, “Did I do wrong?” but “Can I still be corrected?”

Sod: The rebellious son can reflect the inner will that refuses the authority placed over it. When desire repeatedly rejects discipline, what began as an impulse can eventually become identity and character.

페샤트: 토라는 행동이 지속적인 반역으로 굳어진 아들을 묘사한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모두 듣지 않으며 부모가 징계한 후에도 계속 거역한다. 따라서 문제는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형성된 행동의 패턴이다.

레메즈: 반복되는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더 깊은 문제를 보여 준다. 반역은 사람이 더 이상 교정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드라쉬: 토라는 연약함과 완고한 반역을 구별한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위험한 상태는 교정 자체를 거부할 때 시작된다.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교정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소드: 패역한 아들은 자신 위에 세워진 권위를 거부하는 내면의 의지를 비추어 볼 수 있다. 욕망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거부하면 처음에는 하나의 충동이었던 것이 결국 정체성과 성품으로 굳어질 수 있다.

Energetic Flow

Disobedience → Correction → Refusal to Listen →
Repeated Rebellion → Hardened Pattern

Two words define the condition: סוֹרֵר — *sorer*, “wayward/stubborn,” and מוֹרֶה — *moreh*, “rebellious.” But the repeated phrase אֵינוּ שֹׁמֵעַ — *einennu shomea*, “he does not listen,” reveals the heart of the problem. The breakdown begins with the refusal to hear.

Meaning

Biblical “hearing” frequently carries the idea of hearing that leads to obedience. The son's problem is therefore deeper than failing to hear his parents' words physically. He hears their voices but refuses their authority.

This also explains why discipline appears before judgment. The parents have already attempted correction. Torah portrays escalation only after repeated refusal.

Mussar

One of the clearest signs of spiritual danger is becoming uncorrectable. A mistake can be repaired; stubborn refusal to hear makes repair increasingly difficult.

The wise person therefore does not merely ask whether criticism feels pleasant. He asks whether there is truth within it that needs to be heard.

The discipline: When corrected, resist the immediate impulse to defend yourself. First ask, “What am I supposed to hear?”

불순종 → 교정 → 듣기를 거부함 → 반복되는 반역
→ 굳어진 행동

두 단어가 그의 상태를 규정한다. סוֹרֵר — 소렐르, “완고한/빋나간”, 그리고 **מוֹרֶה — 모레/, “반역하는”**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אֵינוּ שֹׁמֵעַ — 에이넨누 쇼메아, “그가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 무너짐은 듣기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자주 순종으로 이어지는 들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말을 육체적인 귀로 듣지 못하는 것보다 깊다. 그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왜 심판 전에 징계가 먼저 나타나는지도 설명한다. 부모는 이미 그를 교정하려고 시도했다. 토라는 반복적인 거부 이후에야 상황이 더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 준다.

영적인 위험의 가장 분명한 징후 가운데 하나는 교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잘못은 고칠 수 있지만, 듣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면 회복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교정의 말이 기본 좋은지만 묻지 않는다. 그 안에 자신이 들어야 할 진실이 있는지를 묻는다.

훈련: 교정을 받을 때 즉시 자신을 변호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라. 먼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물으라.

Verse 19

“then his father and his mother shall take hold of him and bring him out to the elders of his city, to the gate of his place,”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PaRDeS

Peshat: The parents are not authorized to impose the final judgment themselves. They must bring the matter before the elders at the city gate, the recognized place of communal judgment.

Remez: A private family crisis is brought into accountable communal judgment. Emotion must yield to established legal process.

Drash: Even parents who have been repeatedly dishonored cannot simply act from anger. Torah places judgment outside their private emotional authority. **Pain does not grant permission for uncontrolled judgment.**

Sod: The city gate represents the place where private impulse encounters communal truth. Spiritually, our strongest judgments should also be brought to a place where they can be examined beyond our own perspective.

Energetic Flow

Family Crisis → Parents Take Hold → City Gate → Elders → Judgment

The movement is from **the house to the gate**. What could have remained an emotional confrontation inside the family is transferred into an ordered judicial setting.

Meaning

페샤트: 부모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스스로 집행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 문제를 공동체의 재판 장소인 성문으로 가져가 장로들 앞에 세워야 한다.

레메즈: 개인적인 가정의 위기가 책임 있는 공동체의 재판으로 옮겨진다. 감정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드라쉬: 반복적으로 모욕을 받은 부모라 할지라도 분노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토라는 심판을 부모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권한 밖에 둔다.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통제되지 않은 심판의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소드: 성문은 개인적인 충동이 공동체의 진실과 만나는 장소를 나타낸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가장 강한 판단은 자신의 관점을 넘어 검토될 수 있는 자리로 가져가야 한다.

가정의 위기 → 부모가 붙들 → 성문 → 장로들 → 재판

흐름은 **집에서 성문으로** 이동한다. 가정 안에서 감정적인 충돌로 남을 수 있었던 문제가 질서 있는 재판의 자리로 옮겨진다.

The city gate in ancient Yisrael functioned as an important pla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judgment. Bringing the son before the elders means that evidence and judgment are no longer controlled solely by the offended parties.

This continues a major theme of Verse **power must be restrained by Torah**. The soldier's power was restrained, the father's favoritism was restrained, and now parental anger is also placed under judicial restraint.

Mussar

The closer we are to a conflict, the harder impartial judgment becomes. Torah therefore teaches the wisdom of bringing serious disputes before people who are not controlled by the same emotions.

The discipline: When anger makes you certain that your judgment is completely correct, seek wise and impartial counsel before acting.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공적인 행정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다. 아들을 장로들에게 데려간다는 것은 증언과 판단이 더 이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만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은 Devarim 21 의 중요한 주제를 계속 이어 간다. **권력은 토라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군인의 권력이 제한되었고, 아버지의 편애가 제한되었으며, 이제 부모의 분노 역시 재판의 질서 아래 놓인다.

갈등에 가까이 있을수록 공정하게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토라는 심각한 분쟁을 같은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지혜를 가르친다.

훈련: 분노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게 될 때, 행동하기 전에 지혜롭고 공정한 조언을 구하라.

Verse 20

“and shall say to the elders of his city, ‘This son of ours is wayward and rebellious. He is not listening to our voice; he is a glutton and a drunkard.’”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PaRDeS

Peshat: Both parents present the accusation before the elders. The son's rebellion is described more specifically: he refuses their voice and is characterized by uncontrolled consumption—gluttony and drunkenness.

Remez: Rebellion against authority and lack of self-control are connected. A person who refuses legitimate boundaries externally can also become unable to establish boundaries internally.

페샷트: 부모가 함께 장로들 앞에서 고발한다. 아들의 반역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그는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절제되지 않은 소비의 행동을 보인다.

레메즈: 권위에 대한 반역과 자기 절제의 부족이 서로 연결된다. 외적인 정당한 경계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도 경계를 세우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드라쉬: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은 절제되지 않는 욕구를 가리킨다. 더 깊은 문제는 지혜와 훈련과 책임이 아니라 즉각적인 욕망이 점점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소드: 패역한 아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위험을 보여 준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욕망 자체에 속박될 수 있다.

Drash: The words “glutton and drunkard” point toward appetite without restraint. The deeper issue is a life increasingly governed by immediate desire rather than wisdom, discipline, and responsibility.

Sod: The rebellious son portrays the danger of becoming enslaved to appetite. What initially promises freedom—“I will do whatever I desire”—can ultimately become bondage to desire itself.

Energetic Flow

Refusal to Hear → Rejection of Boundaries → Appetite Rules → Excess → Destructive Pattern

The Torah uses זולל — *zolel*, “glutton/profligate,” and סבא — *sove*, “drunkard.” The progression shows rebellion becoming visible through uncontrolled appetite.

Meaning

The passage does not describe ordinary adolescent disagreement. Rabbinic interpretation placed exceptionally narrow legal conditions around the *ben sorer u'moreh*, emphasizing how extraordinary the case was. The Mishnah and Talmud discuss numerous requirements that severely restrict its application.

The ethical warning remains powerful: **unrestrained appetite joined with refusal of correction creates a dangerous trajectory.**

Mussar

듣기를 거부함 → 경계를 거부함 → 욕망이 지배함 → 과도함 → 파괴적인 패턴

토라는 זולל — *줄렐*, “방탕한 자/탐식하는 자”***와 סבא — *소베*,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흐름은 반역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통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청소년의 의견 충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랍비 전통은 *벤 소레르 우모레*에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법적 조건들을 적용하여 이 경우가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강조했다. 미쉬나와 탈무드는 이 법의 적용을 크게 제한하는 여러 조건을 논의한다.

그러나 윤리적인 경고는 여전히 강력하다. **절제되지 않는 욕망과 교정의 거부가 결합하면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Appetite becomes dangerous when **“I want” becomes “therefore I must have.”** Mussar teaches us to create space between desire and consumption.

Interestingly, this returns us to the beginning of the chapter. In 21:11 the soldier **sees and desires**. Torah slows him down. Here the rebellious son refuses that discipline and allows appetite to rule him.

The discipline: Practice saying **“not now”** to something you could immediately satisfy. The ability to delay desire strengthens the ability to govern desire.

욕망은 ***“나는 원한다”가 “그러므로 반드시 가져야 한다”***로 변할 때 위험해진다. 무사르는 욕망과 그것을 충족시키는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들도록 가르친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다시 이 장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21:11 에서 군인은 **보고 원한다**. 토라는 그를 멈추고 기다리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패역한 아들은 그러한 훈련을 거부하고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한다.

훈련: 즉시 충족할 수 있는 욕망에 의도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 욕망을 미룰 수 있는 능력은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을 강화한다.

Verse 21

“Then all the men of his city shall stone him to death with stones. Thus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And let all Yisrael hear, and fear.”

PaRDeS

Peshat: After judicial determination, the punishment belongs to the community rather than to the parents privately. The stated purpose is to remove evil from Yisrael and create communal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persistent rebellion.

Remez: **“All Yisrael shall hear and fear”** shows that Torah views individual conduct as capable of affecting the moral consciousness of the entire community.

Drash: Rabbinic tradition famously narrowed this law so severely that one opinion states that a rebellious son **“never was and never will be,”** and that the passage was given so that its principles might be studied and rewarded. Thus the text itself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페샤트: 재판의 판단이 이루어진 후 형벌은 부모 개인에게 맡겨지지 않고 공동체에 속한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반역의 심각성을 공동체 전체가 깨닫게 하는 것이다.

레메즈: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는 말씀은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드라쉬: 랍비 전통은 이 법의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한 견해는 패역한 아들의 경우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이

became a profound arena for examining parental authority, appetite, rebellion, evidence, and judicial restraint.

Sod: “Removing evil from your midst” can also call us inward. Before attempting to purge evil around us, we must examine the stubbornness, uncontrolled appetite, and refusal of correction that may exist **within us**.

Energetic Flow

Persistent Rebellion → Judicial Process → Community → Evil Removed → Yisrael Hears → Fear

The recurring Devarim formula **וּבְעֵרְתָּ הָרָע מִקִּרְבְּךָ** — **uvi'arta hara miqirbekha**,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shifts attention from the individual case to the covenantal health of the entire community.

Meaning

The rabbinic discussion is essential here. Mishnah *Sanhedrin* 8 and the corresponding Talmudic discussion impose numerous requirements concerning the son's age, conduct, parents, warnings, witnesses, and judicial procedure. The result is an extraordinarily restricted category rather than a general authorization for parents to punish disobedient children.

The passage should therefore not be reduced to “a child disobeys and is executed.” Torah presents a judicial case, and Jewish interpretation surrounds it with extraordinary safeguards.

Mussar

말씀은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도록 주어졌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본문은 부모의 권위, 욕망, 반역, 증거, 그리고 재판의 절제를 깊이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 되었다.

소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말씀은 또한 우리 내면을 향하게 한다. 주변의 악을 제거하려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완고함과 절제되지 않는 욕망과 교정의 거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속적인 반역 → 재판 과정 → 공동체 → 악을 제거함 → 이스라엘이 들음 → 경외함

Devarim 에서 반복되는 **וּבְעֵרְתָּ הָרָע מִקִּרְבְּךָ** —

우비아르타 하라 미키르베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라는 표현은 한 개인의 사건에서 언약 공동체 전체의 건강으로 시선을 옮긴다.

여기에서는 랍비들의 논의가 중요하다. 미쉬나 *산헤드린* 8 장과 이에 관한 탈무드의 논의는 아들의 나이와 행동, 부모, 경고, 증인, 재판 절차 등에 수많은 조건을 둔다. 따라서 이것은 부모가 불순종하는 자녀를 마음대로 처벌하도록 허용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극도로 제한된 법적 범주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자녀가 불순종하면 죽인다”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토라는 하나의 재판 사건을 제시하며, 유대 전통은 그 적용 주위에 매우 엄격한 보호 장치를 세운다.

The progression of verses 18–21 gives a sobering lesson: **behavior repeated becomes habit; habit defended becomes character; character that refuses correction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to change.**

Therefore, the safest time to confront a destructive tendency is while it is still small.

The discipline: Do not wait until a weakness becomes a defining pattern. When correction comes, **hear early, repent early, and change early.**

18–21 절의 흐름은 엄중한 교훈을 준다.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되고, 변호되는 습관은 성품이 되며, 교정을 거부하는 성품은 점점 변화시키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파괴적인 성향을 다루기에 가장 좋은 때는 그것이 아직 작을 때이다.

훈련: 약점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패턴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교정이 올 때 **일찍** 듣고, **일찍** 돌이키고, **일찍** 변화하라.

Verse 22

“And when a man has committed a sin worthy of death, then he shall be put to death, and you shall hang him on a tree.”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PaRDeS

Peshat: Torah turns from the rebellious son to a broader judicial case involving a person lawfully sentenced to death. After execution, the body may be displayed upon a tree, but the following verse will place a strict time limit upon that display.

Remez: Even when judgment is justified, judgment itself has boundaries. Torah does not allow punishment to become unlimited humiliation.

Drash: Justice must never become cruelty. The guilty person's wrongdoing does not grant society permission to abandon all restraint. The next command concerning burial demonstrates that even punishment remains governed by Torah.

So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removing evil and becoming consumed by hatred of the evildoer. Torah's

페샤트: 토라는 패역한 아들의 경우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더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로 넘어간다. 처형 후 시신을 나무에 달 수 있지만, 다음 구절에서는 그 상태로 둘 수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레메즈: 심판이 정당하더라도 심판 자체에는 경계가 있다. 토라는 형벌이 무제한적인 수치와 모욕으로 변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드라쉬: 공의가 잔인함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게 모든 절제를 버릴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장사에 관한 명령은 형벌조차 토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소드: 악을 제거하는 것과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르다. 토라의 경계는

boundaries preserve the moral character of those who administer justice.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성품까지 보호한다.

Energetic Flow

Serious Offense → Judgment → Death → Public Display → Boundary Approaches

중대한 죄 → 심판 → 죽음 → 공개적인 표시 → 경계가 세워짐

The verse cannot be separated from verse 23. Verse 22 permits the display, while verse 23 immediately limits it. **Torah gives authority and then places a boundary around that authority.**

이 구절은 23 절과 분리해서 읽을 수 없다. 22 절은 시신을 다는 것을 허용하지만, 23 절은 즉시 그것을 제한한다. **토라는 권위를 주고 곧바로 그 권위 주위에 경계를 세운다.**

Meaning

Rabbinic interpretation understood this hanging as occurring **after execution**, not as the method of execution itself. The display served a judicial purpose, but it could not continue indefinitely.

랍비 전통은 이 나무에 다는 행위를 사형 집행 방법 자체가 아니라 **처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다. 공개적인 표시는 재판의 목적을 가졌지만 무기한 계속될 수는 없었다.

This fits the larger pattern of the chapter: whether dealing with desire, parental authority, inheritance, or punishment, **Torah repeatedly restrains human power.**

이것은 이 장 전체의 더 큰 패턴과 일치한다. 욕망, 부모의 권위, 상속, 또는 형벌을 다룰 때에도 **토라는 반복해서 인간의 권력을 제한한다.**

Mussar

Being right does not give us permission to become cruel. Even justified correction must have boundaries.

내가 옳다고 해서 잔인해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교정에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

Sometimes the greatest test of character comes not when we are powerless but when we possess legitimate authority over someone who has genuinely done wrong.

때때로 성품의 가장 큰 시험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온다.

The discipline: When correction is necessary, ask not only, “Is this deserved?” but also, “**Where does righteousness require me to stop?**”

훈련: 교정이 필요할 때 “이것이 마땅한가?”만 묻지 말라. 또한 “**의로움은 내가 어디에서 멈추기를 요구하는가?”**라고 물으라.

“Let his body not remain overnight on the tree, for you shall certainly bury him that day, for he who is hanged is accursed of Elohim, so that you do not defile the land which YHWH your Elohim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Elohim 야훼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Elohim 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PaRDeS

Peshat: Even after a condemned person has been executed and publicly displayed, the body must not remain exposed overnight. Burial must take place the same day so that the land is not defiled.

Remez: Judgment has an ending point. Once its purpose has been fulfilled, continued humiliation becomes something different from justice.

Drash: Torah limits punishment even when guilt has been established. The condemned person does not lose all human dignity. Justice must be completed without turning into desecration.

Sod: The land itself is treated as morally sensitive. Human actions do not remain isolated within the individual; injustice, bloodshed, and desecration affect the holiness of the place where YHWH causes His people to dwell.

Energetic Flow

Execution → Display → Time Limit → Burial
→ Land Protected

The command קָבוֹר תִּקְבְּרֶנּוּ — *qavor tiqberennu*, “you shall surely bury him,” is emphatic. Torah does not merely suggest burial; it requires that judgment move toward closure.

페샤트: 사형을 받은 사람이 처형되고 공개적으로 달렸더라도 그 시신을 밤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날 안에 장사해야 한다.

레메즈: 심판에는 끝나는 지점이 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도 수치를 계속 연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드라쉬: 토라는 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형벌에 한계를 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을 잃는 것은 아니다. 공의는 모욕과 훼손으로 변하지 않도록 끝맺어줘야 한다.

소드: 그 땅 자체가 도덕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불의와 피 흘림과 모독은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거하게 하시는 땅의 거룩함에도 영향을 준다.

처형 → 공개적인 표시 → 시간의 제한 → 장사 → 땅의 보호

קָבוֹר תִּקְבְּרֶנּוּ — 카보르 티크베렌누, “반드시 그를 장사하라”**라는 표현은 매우 강하다. 토라는 단순히 장사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반드시 마무리로 나아가도록 요구한다.

Meaning

This verse reveals a recurring theme in Verse **power is never absolute**. The victorious soldier is restrained, the father is restrained, the parents of the rebellious son are restrained, and now even the community carrying out judgment is restrained.

Torah protects not only the innocent from abuse but also the moral integrity of those who exercise authority.

이 구절은 Devarim 21 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보여 준다. **권력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승리한 군인도 제한되고, 아버지도 제한되며, 패역한 아들의 부모도 제한되고,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공동체마저 제한된다.

토라는 학대를 당할 수 있는 무고한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온전함도 보호한다.

Mussar

There is a time to confront wrongdoing and a time to stop punishing. Continuing to shame a person after correction has served its purpose can become its own form of wrongdoing.

The discipline: When you have addressed someone's wrongdoing, do not keep the person permanently hanging from the memory of the offense. Learn when justice requires closure.

잘못을 다루어야 할 때가 있고 형벌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 교정의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잘못이 될 수 있다.

훈련: 누군가의 잘못을 다룬 후에는 그 사람을 그 잘못의 기억에 영원히 매달아 두지 말라. 공의가 언제 마무리를 요구하는지를 배우라.